



영농철이 되어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싶은 갖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관계당국과 농업업계에서는 농민의 사용편의와 안전사용을 위해 개선점은 과감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농민 여러분의 시정사항을 유형별로 묶어 답변한 것이다. 농민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바란다.

<편집자註>

### 種類 많아 誤用가능성 높아

영농후계자로 자립할 꿈을 키우고 있는 농촌의 젊은이입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한번 실수가 수확량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농약의 종류가 많아 사용시 마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종류를 줄여 주었으면 합니다.

### 유효성분 같은것 품목위주로 통합

중전에는 상표 위주로 농약포장에 표기하고 이를 선전, 광고하여 왔기 때문에 유효(주) 성분이 동일

한 농약도 회사별로 각각 다른 여러개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농약의 종류가 많다는 여론과 농약선택 사용에 혼돈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 수도용, 품목기호 제정 혼란방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80. 12. 31 농약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효(주) 성분이 동일한 농약은 품목명 위주로 표기토록 함으로써 중전 331개의 상표에서 230개의 품목으로 축소조정하여 농민들이 품목명 위주로 농약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도용농약(논잡초약포함)에 대하여는 품목기호를 제정하여 동일성분의 농약에는 동일기호를 부여하여 농약명과 품목기호만 외우면 동일성분의 농약을 쉽게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적정농약 사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표에 외래어 안 쓸 수 없나

정부와 업계에서도 우리 농민의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러나 영농철만 되면 농약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만큼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약상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原劑의 대부분을 외국서 수입해

농약은 그 원료(주성분)에다 부제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농약의 원제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표사용은 국제관례상 새로운 상품의 특허를 얻어 등록하게 되면 일정기간 등록된 상표를 보장(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 원제 수출국에서 원제공급을 거부하게 됨으로 국내의 농약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외래어 상표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 특허권 보호 및 국제교역상 불가피

또한 국제 교역때나 기술제휴등에 있어 국제 표준기구(ISO) 농약명칭과 화학명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국제적 통용이 원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농약의 품목기호와 품목명만을 외우게 되면 동일유효성분의 농약을 쉽게 구입 사용할 수 있으니 이런점을 감안하여 농약선택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빈병 논밭에 방치 사례 많다

해마다 영농철이 되면 많은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한 빈병을 함부로 논밭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안전한 빈병폐기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 빈병재사용은 불량농약 발생가능

농민들이 사용하고 난 농약빈병을 종전에는 농협계통 조합을 통하여 유상으로 처리한바 있으나 수집된 빈병 내부를 세제나 용해제등을 사용하여 깨끗히 세척한다 해도 농약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농약성분 보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빈병을 수집, 운반, 세척하는 도중 충격이나 진동등으로 병표면에 금이가는 경우가 있어 약주입시나 수송보관중 병파손율이 많으며, 수집된 빈병의 병구가 병제작 회사별, 제작방법 등에 따라 일정치 않으며, 병구 파손등으로 속마개 또는 걸뚜경의 밀전이 잘 안되고 약액이 누출되어 품질불량 농약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 마을단위 집하장에 모아 안전폐기

'80년도 부터는 농약빈병 수집을 마을단위 새마을사업과 자연보호 운동으로 연계하여 수집처리토록 하고 있으니 자기가 사용한 농약빈병은 자기가 수집, 폐기한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마을단위 빈병집하장에 모아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농약빈병으로 인한 인축의 피해가 없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설명서 떨어져 재사용곤란해

농약성수기인 요즘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다쓰지 못하고 보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다 보면 병에 부착된 농약 설명서의 글씨가 지워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후에 다시 쓸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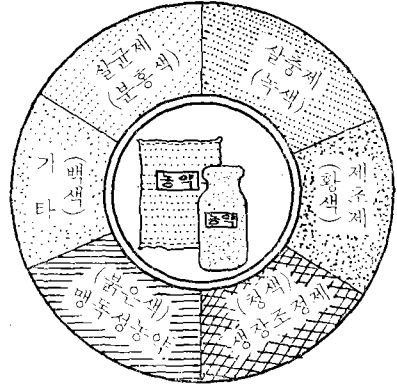
### 포장지와 병뚜껑 색깔로 분류가능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수는 3,300여종이며 현지 유통하고 있는 농약수는 230여종(일본 1,300여종)으로 환경조건, 지역여건, 작부체계 등에 따라 병충해의 발생 양상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때 새로운 농약의 개발, 보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농약사용 농민들이 농약선택



## 포장지 바탕색깔구분



사용에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농약 포장지 바탕색깔을 살균제=분홍색, 살충제=녹색, 제초제=황색, 맹독성농약=적색, 생장조정제=청색, 기타=백색으로 구분, 표시하였으며 농약병 뚜껑 색깔도 포장지 바탕색깔과 동일하게 제작공급토록 함으로써 농약포장지나 병뚜껑으로도 약종별 식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농약병 상단에 종류별 각인제조

농약병표면에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라고 백색실크 인쇄 또는 각인 제조토록 함으로써 포장지가 물에 묻어 떨어진 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공급하고 있으니 농약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약구입,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 농약사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